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부모학대경험 여부의 조절효과

이종석¹, 정득¹, 김인설², 황현석^{*}
¹한림대학교 경영학부, ²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Ecological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Negative Emotion: Moderating Effects of Parent's Abuse

Jongseok Lee¹, Deuk Jung¹, Insul Kim² and Hyunseok Hwang^{1*}

¹Division of Business, Hallym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1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n=2,270명),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모학대가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적 정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관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부모학대 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 사이에 경로 차이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부모학대 비경험집단(n=1,644명)은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반면, 경험집단(n=626명)은 ‘교사관계→부정적 정서’와 ‘학교생활→부정적 정서’의 경로가 유의적이지 않아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경로가 제한적이었다.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총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은 ‘친구관계’인 반면, 경험집단은 ‘부모관계’이었다. 이는 부모의 학대로 형성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요인 역시 부모라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교사관계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는 비경험집단과 달리 경험집단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교사관계는 학교적응도를 높였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간접효과는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에만 존재했다. 따라서 부모학대 경험집단에 있어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는 학교적응에 위협요인일 뿐 아니라, 청소년 정서적 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dopts an ecological perspective to empirically navigate the issues surrounding the impact of parental abuse on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The data is us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1 (KCYPs 2011), which wa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2,270). Path models were constructed in which adolescents' environmental mediators (i.e.,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and school life) control their negative emotions (i.e., aggressiveness, negative physical symptoms, social weakness and depression); in turn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ased on parental abuse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s with the non-abused group (n=1,644), all the environmental mediators remained significant to control their negative emotion; whereas, the abused group (n=626) showed no significant pathway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school life to negative emotion. This indicates that the abused group have limited number of the mediators to control their negative emotion than those of the non-abused group. For the non-abused group, the mediator with the highest total effect to control their negative emotion was the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on the other hand, the abused group's mediator that showed the highest total effect to control their negative emotion was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Although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mained significant as a mediator to affect school life for the both groups, teachers were not significant to control the negative emotion of the abused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 the abused group is a factor to threaten the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which also leads to problems that are related to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 Negative Emotion, Ecological Factors, Structural Equation Model

이 논문은 2013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HRF-201312-1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eok Hwang(Hallym Univ.)

Tel: +82-33-248-1835 email: hshwang@hallym.ac.kr

Received January 10, 2014

Revised February 24, 2014

Accepted May 8, 2014

1. 서론

2012년 한 해 동안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로 접수된 신고는 10,943건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들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370건으로, 이는 학대사례의 84%에 해당한다[1]. 중·고등학생 가출의 원인 중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이 6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살의 충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16.9%가 ‘가정불화’를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2]. 학교수업을 “꿈이 없는 아이들의 정기모임”이라고 말하며[3], 초·중·고등학교학생의 6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공부’는 가장 큰 고민거리(32.9%)이며, 자살하고 싶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39.2%)이라고 한다[2].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에 대한 부적응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허무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부적응의 척도로서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생태학적 영향요인과 그 경로를 파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범죄나 비행보다는 잠재변수로서 정서적 문제(공격성, 위축 등)를 근본적인 부적응 문제로 인식하고, 그 원인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각 개인의 특성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와 그 영향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로서 부모에게서 학대받은 경험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가정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부모, 교사, 친구관계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가?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적응도가 낮은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는가? (2)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에 있어서, 부모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즉 두 집단에서 부정적 정서와 그 영향요인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가?

2. 문헌고찰 및 연구모델

2.1 관련연구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한다. 발달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부적응은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행동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증상의 대표적인 것

이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등이며[4], 이는 부정적 정서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정서문제는 비행이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에 있어 주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특히 부모학대는 청소년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적응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5,6].

하나의 연구 흐름은 부모학대로 인한 육체 및 정신적 피해와 부적응 행동범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은주(2004)는 신체적 학대가 뇌손상과 같은 심각한 육체적 장애뿐 만아니라, 심리적 위축으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7]. 장화정(2004)은 부모학대 경험자는 자아기능 손상, 대인관계이상, 충동조절이상, 자학이나 자해와 같은 후유증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8]. 설인자(2006)는 부모학대가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되어, 학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부모학대는 가출,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며[10,11], 심지어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보고[12,13]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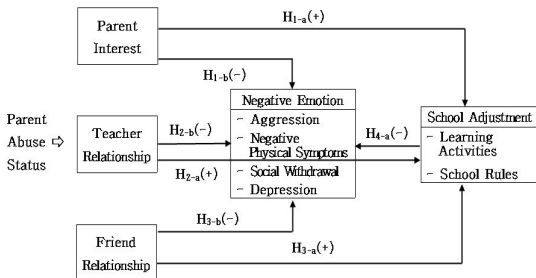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모학대의 유형에 따라 부정적 정서의 행동증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Brenner(1986)는 부모학대를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구분하고, 신체적 학대는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정서적 학대는 사회적 위축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14]. 신혜영·최해림(2003)은 부모학대의 유형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나누고, 공격성은 모든 유형과 관련이 있지만 신체학대와 관련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15]. 그리고 학대가 심각할수록 공격성과 대인불안의 정도가 높았다. 황은수·성영혜(2006)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불안 및 우울감과 관련이 있으며, 정서학대 경험자는 높은 수치심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6].

마지막으로 부모학대를 포함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지지, 온정성, 자율성 인정 등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17, 18], 문제는 부모학대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홍영수(2010)는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9]. 김재철 등(2012)은 부모학대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 부모의 교육참여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주의력 결핍, 심리적 위축을 완화하는 요인이 되지 못했다[20]. 본 연구는 부모학대 경험자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조절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 흐름에 해당한다.

2.2 연구모델과 가설

청소년 성장과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중 이론적 틀로 Bronfenbrenner(1986)의 생태학적 모델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21].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발달은 환경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으며, 청소년 역시 자신이 속한 환경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22]. 정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되며, 한 번 형성되면 잘 변화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순용(2007)은 청소년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서와 발달환경에 관계를 고려한 생태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로서 가족과 학교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로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는 것으로 Fig. 1과 같이 모형화하였다. 부모, 교사, 친구의 관계는 청소년 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학교생활 적응도를 통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도는 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Fig. 1] Ecological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환경요인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설은 다음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진다. (1) 긍정적인 교사, 친구, 부모관계, 그리고 학교적응도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킴으로써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긍정적인 교사, 친구, 부모관계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교사, 친구, 부모관계는 부정적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학교생활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부모학대 여부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학대는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를 하위개념으로 일컬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광의의 개념으로 방임과 성적학대 개념도 포함하는 추세이다. 부모학대여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ig.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요인들과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 부모학대 여부가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즉 '부모학대 여부에 따라 환경요인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부모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사이에 경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1'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24].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한 이 패널조사는 2016년까지 7년간 매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인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선정하여, 매년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25]. 본 연구는 2차년도(2011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패널 2,270명 (남 1,147명 / 여 1,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교 2학년용으로 개발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변수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학대 여부, 부정적 정서, 그리고 환경으로 대별된다. 특히 부정적 정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발달심리학에 기초하여 조작화된 하위 항목들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는데(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중심화 경향(centralization tendency)을 제거하기 위해 '보통이다'에 답할 수 없게 했다. 부모학대의 경험 여부는 학대의 일반적 하위개념인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를 측정하였다.

신체적인 학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이 해당되며 '잘못하면 무조건 때린다',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대한다'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항으로 '정도 이상으로 혼내신다'와 '심한 욕을 많이 한다'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였다. 관련 항목의 평균값이 2점 이하이면 '부모학대 비경험' 집단으로 설정하였고, 평균값이 2점 초과면 '부모학대 경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3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고, 범주형 변수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측정했다. 부모학대 여부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값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부정적 정서와 이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한 통계 패키지로 SPSS 19.0과 AMOS 18.0을 사용했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 특성과 부모학대의 관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별 부모학대 경험자 비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별로 그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양육형태와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비중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 중 부모학대 경험자는 33.7%로서 여학생의 21.4%보다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남자학교 36.6%, 남녀공학 27.4%, 여자학교 21.4%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부모학대 경험자 비중이 33.5%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 지역 학생에서 그 비중은 19.8%로 가장 낮았다.

부모양육형태에 따라 생부와 생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그 비중은 27.5%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 28.5%보다 낮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부모학대 경험자 비중은 저소득층 31.2%, 중산층 27.3%, 고소득층 26.1%의 순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and Parent's Abuse

Variables / Category		Samples (n=2,270)	Parent Abuse		χ^2 test Statistic (p-value)
			Non-abuse (n=1,644, 72.4%)	Abuse (n=626, 27.6%)	
Gender	Male	1,147 (50.5)	761 (66.3)	386 (33.7)	42.856 (<0.001)
	Female	1,123 (49.5)	883 (78.6)	240 (21.4)	
School	For Boys	238 (10.5)	151 (63.4)	87 (36.6)	15.099 (<0.001)
	For Girls	281 (12.4)	221 (78.6)	60 (21.4)	
	Coeducation	1,751 (77.1)	1,272 (72.6)	479 (27.4)	
Region	Seoul	218 (9.6)	145 (66.5)	73 (33.5)	11.937 (0.018)
	Megalopolis	740 (32.6)	524 (70.8)	216 (29.2)	
	Metropolis	290 (12.8)	206 (71.0)	84 (29.0)	
	Local City	845 (37.2)	627 (74.2)	218 (25.8)	
	Rural Community	177 (7.8)	142 (80.2)	35 (19.8)	
Parent	Biological	1,916 (85.5)	1,391 (72.6)	525 (27.4)	0.191 (0.651)
	Foster & etc	354 (14.5)	253 (71.5)	101 (28.5)	
Income (n=2,131)	Low	170 (8.0)	117 (68.8)	53 (31.2)	1.613 (0.445)
	Middle	1,379 (64.7)	1,003 (72.7)	376 (27.3)	
	High	582 (27.3)	429 (73.7)	153 (26.3)	

1) Fisher's exact test.

4.2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36개의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5개 요인은 4개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28개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으로 도출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공통성에 있어서 권장 수준인 0.5를 만족시킨다. KMO(Kaiser-Meyer-Olkin) 척도는 0.899로 0.9에 아주 가깝게 높게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치의 p -값은 0.001보다 작았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교우친밀도(0.677)'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0.7 기준을 상회했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n=2,270)

Measured Variables	Factor	Model	Ref.	Communality	F	Cronbach's α
If I can't get what I want, I get into fight	Aggression			0.687	0.800	0.788
I often get argumentative for small things				0.661	0.782	
I interfere with others				0.593	0.703	
I often get into fights for minor reasons				0.551	0.674	
I often feel nausea	Negative Physical Symptoms	Negative	[26]	0.700	0.795	0.822
I feel abdominal pain when I study				0.616	0.723	
I sometimes feel difficulties in breathing				0.580	0.701	
I often suffer from headache				0.551	0.659	
I have no appetite sometimes				0.510	0.655	
I am a shy person	Social Weakness	Emotion [NE]	[27]	0.753	0.843	0.848
I am a timid person				0.739	0.828	
I have trouble articulating my opinions				0.657	0.756	
I feel awkward around many people				0.614	0.682	
I don't like people's attention				0.479	0.594	
I feel overwhelmed by everything	Depression			0.722	0.769	0.853
I think my future is not bright				0.626	0.736	
I feel lonely				0.647	0.725	
I often blame myself when things go long				0.581	0.670	
I feel miserable, sad, depressed				0.599	0.657	
My parents keep my body and clothes clean	Parent Neglect	Parent Interest [PI]	[28]	0.708	0.822	0.796
My parents are interested in my school life				0.687	0.798	
My parents take care of me when I am sick				0.671	0.784	
My parents consider me as their priority				0.470	0.672	
My parents assault me causing bruises and cuts	Parent Abuse	Parent Abuse [PA]		0.784	0.871	0.855
My parents always hit me when I do something wrong				0.782	0.867	
My parents often say hurtful things to me				0.721	0.824	
My parents scold me too much				0.547	0.704	
I am glad when I see teachers outside of school	Teach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TR]	[29]	0.711	0.783	0.834
I feel comfortable when I talk to teachers				0.677	0.757	
My teacher is kind to me				0.663	0.751	
I hope my teacher can be my teacher next year				0.555	0.711	
I greet my teacher delightfully				0.585	0.622	
I get well along with my classmates	Friend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FR]		0.650	0.749	0.677
I share my books and belongings with others				0.586	0.685	
I feel accepted to my classmates				0.528	0.659	
I understand class materials	Learning Activities	School Adjustment [SA]	[29]	0.681	0.777	0.743
I do my homework				0.585	0.669	
I enjoy class activities				0.581	0.660	
I ask when I do not understand class subjects				0.481	0.589	
I adhere to school policy and rules	School Rules			0.635	0.752	0.789
I use school equipment carefully				0.662	0.739	
I don't run in hallways and stairs				0.562	0.711	
I always take trash to trash cans				0.514	0.634	
I am responsible of my school duties				0.482	0.485	
Kaiser-Meyer-Olkin의 MSA 0.899						
Bartlett test 56265.3				p-value <0.001		

4.3 부모학대 여부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부모학대 경험자 집단과 비경험자 집단 사이에 연구 변수들의 평균 차이를 검정 결과,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사친밀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4가지 요인들(공격성, 부정적 신체증세, 사회적 위축, 우울감) 각각의 평균은 부모학대 경험자 집단이 비경험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교우친밀도, 부모애정도, 학습몰입도, 학교규칙준수도는 부모학대 경험자 집단이 비경험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3] Mean Comparison between Parent Abuse and Parent Non-abuse Group

Model	Factor	Parent Abuse (n=2,270)		t-value (p-value)
		Non-abuse n=1,644	Abuse n=626	
Negative Emotion	Aggression	2.121	2.366	-8.371 (<0.001)
	Negative Physical Symptoms	1.857	2.161	-10.041 (<0.001)
	Social Withdrawal	2.207	2.321	-3.468 (0.001)
	Depression	1.832	2.156	-9.630 (<0.001)
Parent Interest	Parent Interest	3.165	3.038	4.782 (<0.001)
Teach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2.811	2.790	0.680 (0.497)
Friend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3.155	3.047	4.235 (<0.001)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ies	2.856	2.732	6.284 (<0.001)
	School Rules	2.815	2.746	2.630 (0.009)

1) t-test for two independent sa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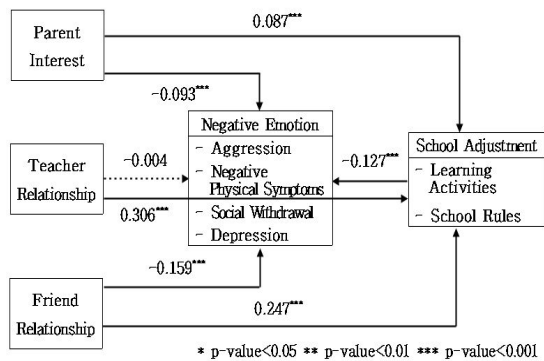
4.4 모형의 경로분석과 가설검정

연구모형은 자유도(df)가 0인 충분(saturated)모형로 경로모형의 가설 검정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교사친밀도→부정적 정서’ 경로만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고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따라서 최종모형을 제시하면 Fig. 2와 같다.

[Table 4] Hypotheses Test and Results

Hypothesis	Path	Coeff.	S.E.	p-value
H _{1-a}	PI→SA	0.087	0.015	<0.001
H _{1-b}	PI→NE	-0.093	0.018	<0.001
H _{2-a}	TR→SA	0.306	0.014	<0.001
H_{2-b}	TR→NE	-0.004	0.018	0.822
H _{3-a}	FR→SA	0.247	0.018	<0.001
H _{3-b}	FR→NE	-0.159	0.022	<0.001
H _{4-a}	SA→NE	-0.127	0.025	<0.001

PI: Parent Interest, SA: School Adjustment, NE: Negative Emotion, TR: Teacher Relationship, FR: Friend Relationship



[Fig. 2] Path Analysis Results of SEM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교사친밀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는 모두 부정적 정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 교우친밀도는 -0.159, 부모애정도는 -0.093, 학교적응도는 교사친밀도, 교우친밀도, 부모애정도로부터 양의 영향을 받아 -0.127로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4.5 부모학대 여부의 조절효과

부모학대 경험자 집단과 비경험자 집단 사이에 각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기저모형인 비제약모형과 모든 경로가 같은 계수값을 갖는 제약모형의 카이스퀘어 검정값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Table 5]. $\Delta \chi^2/df = 4.944(p\text{-value} < 0.001)$ 로서, 부모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다.

[Table 5] Model Fit of Constrained Model

Model	χ^2	df	CFI	NFI	TLI	RMSEA
Constrained	34.609***	7	0.983	0.979	0.952	0.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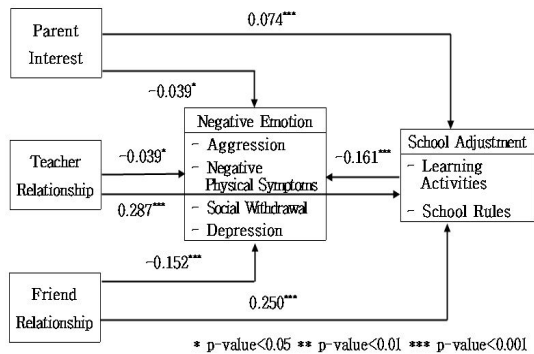
*** p<0.001

부모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경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경로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부모학대 비경험 집단은 모든 경로가 유의한 반면, 경험 집단은 ‘교사친밀도→부정적 정서’와 ‘학교적응도→부정적 정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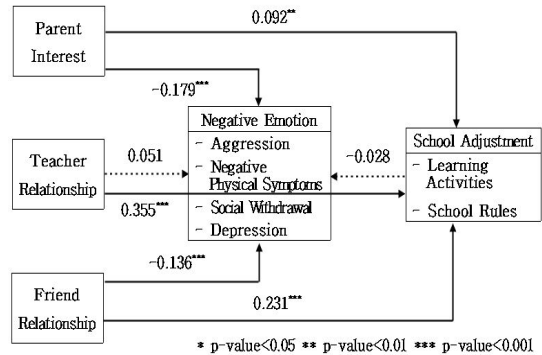
[Table 6] Group Comparison Results

Hypot he sis	Parent Non-abuse			Parent Abuse		
	Coeffi.	S. Coeffi.	p-value	Coeffi.	S. Coeffi.	p-value
H _{1-a}	0.074	0.098	<0.001	0.092	0.095	0.004
H _{1-b}	-0.039	-0.051	0.036	-0.179	-0.193	<0.001
H _{2-a}	0.287	0.394	<0.001	0.355	0.455	<0.001
H _{2-b}	-0.039	-0.054	0.050	0.051	0.069	0.145
H _{3-a}	0.250	0.259	<0.001	0.231	0.241	<0.001
H _{3-b}	-0.152	-0.157	<0.001	-0.136	-0.150	<0.001
H _{4-a}	-0.161	-0.161	<0.001	-0.028	-0.029	0.549

Fig. 3과 Fig. 4는 부모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의 경로를 각각 도식화 한 것이다.



[Fig. 3] Parent Non-abuse Group



[Fig. 4] Parent Abuse Group

부모학대 경험 여부 따라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부모학대 비경험 집단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사친밀도(-0.193)’이었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 교사관계, 부모관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 경험 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애정도(-0.18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특히, 교사친밀도와 학교적응도의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부모학대 비경험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7] Total Effects on Negative Emotion

	Parent Non-abuse (n=1,64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 Interest	- 0.039*	- 0.012***	- 0.050***
Teacher Relation	- 0.039*	- 0.046***	- 0.086***
Friend Relation	- 0.152***	- 0.040***	- 0.193***
School Adjustment	- 0.161***		- 0.161***

	Parent Abuse (n=626)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 Interest	- 0.179***	- 0.003	- 0.181***
Teacher Relation	0.051	- 0.010	0.041
Friend Relation	- 0.136***	- 0.006	- 0.142***
School Adjustment	- 0.028		- 0.028

* p<0.05, ** p<0.01, *** p<0.001

5.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1’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부모학대가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적 정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로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부모학대가 이러한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부모학대 경험자집단과 비경험자집단의 경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은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긍정적인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는 부정적 정서를 약화시키는 직접적 (-)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적응도를 증가시키는 (+) 효과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간접적 (-)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적응도는 직접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 효과를 갖는다. 직접효과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학교적응도’이었으며, 총효과 측면에서는 ‘친구친밀도’이었다.

반면 부모학대 경험집단은 ‘교사친밀도→부정적 정서’와 ‘학교적응도→부정적 정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학대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친구친밀도와 부모애정도만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 효과가 있었다.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부모애정도’이었다.

부모애정도는 부모학대 경험집단에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에서 직접효과가 -0.152인 반면, 경험집단에서 직접효과는 -0.179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대로 형성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요인 역시 부모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영수(2010)는 부모학대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19]. 이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데 부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존연구의 결과[19, 20]와 일치한다.

교사친밀도는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에서 부정적 정서

를 완화하는 요인이 되지만, 부모학대 경험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경험 집단에서 교사친밀도의 총효과는 -0.086으로 유의하였지만, 경험 집단의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가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해외의 연구결과 [30, 31]와 비교하여, 부모학대 경험집단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적 불일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국내와 해외의 교육현실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39.6%에 불과하였다[32].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교육을 경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수업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학원 강사가 학교 교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33]. 이러한 국내 교육현실에서 청소년 정서문제의 해결에 교사의 일방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학대 비경험집단과 경험집단 모두에서, 교사친밀도는 학교적응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교사친밀도가 학교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에서 각각 +0.278과 +0.355로서 유의하였으며, 부모애정도나 친구친밀도보다도 학교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는 교사가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연구의 결과[34, 35]와 일치한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에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적응도를 증가시키는 (+)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문제는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에서는 교사친밀도가 학교적응도를 높여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를 갖지만, 경험집단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간접효과가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은 -0.046으로 유의하지만, 경험집단은 -0.010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학대 경험 집단에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학교적응도를 높이지만, 이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중백(2012)은 학교 교사가 정서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36].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학교적응에 위협요인일 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부모학대 비경험집단과 경험집

단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요인이 된다. 부모학대 비경험집단의 경우 친구관계의 총효과는 -0.193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험집단의 경우 총효과는 -0.142로서 부모관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는 정서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 부모학대 비경험자는 부모 혹은 교사에서 친구로 이동한 반면, 부모학대 경험자는 부모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는 부모학대 경험 집단에서 부모관계를 배제한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부정적 정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부모학대가 이러한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부모학대의 유형과 시기를 고려하지 못했다. 학대유형에 따라 정서적 문제의 표출증상이 다를 수 있으며, 또 학대 시기에 따라 증상의 전개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정서로서 자아정체감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 셋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가정, 또래, 학교와 같은 미시체계만을 고려하였다. 중간체계, 거시체계 등의 환경요인도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응답자의 지각된 사실에 기초한 분석결과로서, 사례추적연구와 같은 정성적 연구에 의해 재검토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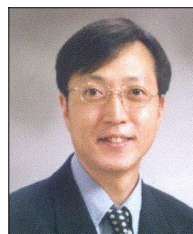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ational Child Abuse Status Report, 2013.
- [2]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Adolescent Statistics, p.5, 2013.
- [3]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withansu&logId=4479161>
- [4] Winkley, W.,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Cassell Press, 1996.
- [5] Eun-Joo Lee, "The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Domestic Violence," Korean Academic of Social Welfare, the great autumn academic conference, no. 3, pp.493-505, 2004.
- [6] Kyeong Ju Lee, Hyo Shick Shin, "The Types of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 Behaviors Experienced by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6, no. 8, pp.39-50, 1998.
- [7] Min Jung Kim, Hyun Sim Doh,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2, no. 2, pp.149-166, 2001.
- [8] Hwa-jung Jang,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 of Victims and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8, no. 4, pp.777-792, 2004.
- [9] Korea Adolescent Development, Adolescent Psychology, Koyoookbook, pp.250-253, 2006.
- [10] Myoung-Jin Lee, Joo-Yeon Cho, Moonkyoung Choi, "Child Abuse and Delinquency," Social Research, vol. 14, pp.9-42, 2007.
- [11] Jae Chul Kim, Ji Young Choi, "Adolescents' Individual Change in Overt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he Effect of Close Friends Variabl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5, no. 2, pp.93-115, 2004. vol. 21, no.1, pp.123-147, 2010.
- [12] Yang, B., & Clum, G. A., "Effects of early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for suicid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pp.177-185, 1996.
DOI: [http://dx.doi.org/10.1016/S0272-7358\(96\)00004-9](http://dx.doi.org/10.1016/S0272-7358(96)00004-9)
- [13] Nilsen, W. & Conner, K. R.,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childhood and adult victimiz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3), pp.49-62, 2002.
DOI: http://dx.doi.org/10.1300/J070v11n03_03
- [14] Bronfenbrenner, U.,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pp.723-74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22.6.723>
- [15] Hye-Young Shin, Hae Lim Choi,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by Parents, Child's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2, pp.295-307, 2003.
- [16] Eun Soo Hwang, Young Hye Seo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scious Affect and the Impact of Childhood Abuses on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vol. 9, no. 2, pp.73-89, 2006.

- [17] Seung Won Chung, Hyun Sim Doh, "Parental Sociability, Parenting Behaviors, and Shyness in 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19, no. 2, pp.149-161, 1997.
- [18] Hyun Ah Chung, "Survey research on the attitude of parents and kindergarten teachers about Basic Social Education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19] Young Su Hong, "The Influence of their parent's abuse on children's depression and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30, pp.225-244, 2010.
- [20] Jae Chul Kim, Jeong Sook Lee, Gyeong Joo Seong, "Impact of Parents' Abuse on Children's Emotion during Adolescence : Moderating Effect of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20, pp.119-139, 2012.
- [21] Bronfenbrenner, U.,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re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London: JAI Press, pp.187 - 249, 1989.
- [22] F. Philip Rice, Kim Gale Dolgin, Jung Young Sook etc. Trans., The Adolescent :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Sigma Press, pp.24-43, 2009.
- [23] Soon-Yong Kweon, Yeon-Sook Yang, "Influences of Psychological Emotional State, Learning Motive and Family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2, no. 13, pp.115-129, 2007.
- [24] <http://www.nypi.re.kr>
- [2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Panel 1-2th Year User's Guide, pp.1-2, 2010.
- [26] Byung Soo Min, The Effects of Academic Achievement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1991.
- [27] Myo Yeon Huh,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00.
- [28] Jo Bung Hwan, Im Gyeong Hu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4, pp.729-746, 2003.
- [29] Sun-Hee Kim, Kyung-Yeon Kim,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6, no. 4, pp.155-164, 1998.
- [30] Baker, R.W., &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celling Psychology, vol. 31, pp.179-189,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 [31] Davis, H. A.,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38, pp.207-234, 2003.
DOI: http://dx.doi.org/10.1207/S15326985EP3804_2
- [32] http://www.goe.go.kr/upload/synap/860688300_0000_20110119_00.htm
- [33]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569343_5786.html
- [34] Ji Eun Choi, Yong Joo Shin,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1, no. 2, pp.199-210, 2003.
- [35] Hee-Soo Kim, Eun-JongYun, "The Effect of Teacher Behavior and Attachment Stability on School-related Adjustment in Adolesce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5, no. 2, pp.93-115, 2004.
- [36] Jong Baeg Kim, "Effects on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Students' Psychological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vol. 26, no. 2, pp.523-541, 2012.

이 종 석(Jongseok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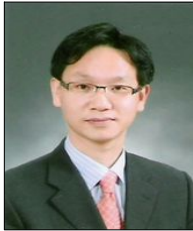
- 1995년 2월 : KAIST 경영과학과 (경영학 석사)
- 2003년 2월 : KAIST 경영공학과 (경영학 박사)
- 2004년 7월 ~ 2005년 8월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 2005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경영전략, 통신산업, 의료산업

정 득(Deuk Jung)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관심분야>

경영전략, 교육산업

김 인 설(Insul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기약학사
- 2005년 6월 : University of Akron 예술경영학 (석사)
- 2011년 3월 : The Ohio State University 문화정책/ 예술경영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심분야>

커뮤니티 아트, 문화마케팅,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

황 현 석(Hyunseok Hwang)

[정회원]



- 1998년 2월 :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사)
- 2000년 2월 :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공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림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관심분야>

스마트 비즈니스, 빅 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